



건설의 신 교과서를 쓰고 있는 현장

(주)건설알포메 서면 타워 베르 · 빌아파트 신축현장-



▲ 오 세 현 소장

드 녁에는 벌써 푸릇푸릇한 기운이 가득한 것이 금새라도 봄이 찾아 올 것만 같은 이곳 부산 서면에서 (주)건설알포메가 시공하고 있는 타워 베르 · 빌아파트 신축현장(오세현 소장)을 찾았다.

이 현장은 부산에서도 중심지인 부산진구 부암동에 지상 43층 지하 6층의 감각적 신개념의 쌍둥이 초고층 빌딩으로 또하나의 부산의 명물이다. 이를 위해 (주)건설알포메 타워 베르 · 빌아파트 신축현장 사람들은 오늘도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인간중심의 인본주의 경영철학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라는 휴머니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21세기 건강한 인간,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뛰는 (주)건설알포메는 97년부터 건설업을 시작으로 99년 9월에 (주)대교건설에서 (주)건설알포메로 회사명을 변경하였으며 지난해는 건설업 도급순위 59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정부에서 재해율이 낮은 기업에게 RQ심사시 주어지는 가산점 최고점수인 +2점을 받는 등 역사는 짧지만 안전하고, 고품질을 지향하면서 급성장하는 보기드문 기업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기업



(주)건설알포메 대표이사이면서 부회장인 안과순 부회장은 “바로선 기본은 곧 경쟁력을 갖춘다” 고 강조한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모든 것은 기본과 원칙 속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건축에 있어 선과 면으로 원칙을 준수하고, 안전한 시공을 하는데 있어 한치의 요령도 용납하지 않는다.

회사 이름에서도 경영자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알포메는 처음을 의미하는 알파와 끝을 의미하는 오메가를 합성한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건설의 신교과서를 (주)건설알포메가 써나간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를 주고객으로 하고 있는 대교그룹의 경영철학과 잘 어울리는 부분이다.

부산의 명물을 안전한 시공에서 탄생시켜야 할 터

건설인으로 4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 공사 현장에서 일한다는 것은 그리 흔한 것이 아니다. 올해로 건설경력 20년이 되는 오세헌 소장은 나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던 것에 대해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에 흠집 즉,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다면 불명예스러운 경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세헌 소장은 안전시공, 무재해 준공을 위해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그의지는 공법에서부터 보여준다. 주거용 건축물이지만 철골구조로 시공하고, 철골구조를 완성한 후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외부에 유리 작업을 먼저 시공한다. 외부로 비산과 추락 위험 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이 밖에 안전통로를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주변에 고층 건물이 있고, 현장이 도심 중간에 위치한 환경적인 여건상 공간이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안전통로를 최우선적으로 설치한다고 한다.

협력업체는 우리의 파트너

이 곳에서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그냥 지시에 따라 일만 수행하는 협력 직원이 아니다. 타워 베르 · 빌 아파트 신축현장을 무재해로 준공하는데 파트너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혼혈의 힘을 다한다.

해당 공중에 투입되기 전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작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시공, 고품질 시공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최적의 방법을 찾는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가 해당 작업에 있어 위험요소와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래서 이러한 모임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립의 기회로 삼고, 의견을 작업지침에 반영한다.

그럼으로써 협력업체 직원도 이 현장의 주체로,



파트너로 일한다는 사명감을 심어주고, 자율적으로 안전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TOTAL SAFETY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TOTAL SAFETY를 수행해야 한다고 유영국 안전과장은 말한다. 한 예로 전기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할 때에는 강사인 안전관리자는 전기에 대해 잘 알고 교육에 임해야 한다. 즉, 안전관리자는 모든 면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유영국 안전과장은 자격증이 많다고 오세현 소장이 귀띔한다. 이에 유과장은 “해당 현장에서 교육을 하다보면 그 분야에 대해 알아야 교육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당분야에 대해 공부하다보니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배경을 이야기한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배우는 유과장을 보면서 21세기의 안전관리자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의 가야할 길

안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율 안전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야할 길은 멀다고 우리나라의 안전 실태를 꼬집는 유영국 안전과장은 안전의 규제완화에 대해 부정적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안전 수준이 올라오는 데에는 안전관리자의 땀방울이 있었다. 규제완화와 같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안전을 축소한다는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는 안전관리자도 TOTAL SAFETY를 하기 위해서 자질향상에 매진해야 할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안전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끝으로 약 2년 후 쌍둥이 빌딩이 부산의 명물로 등장할 때까지 무재해 준공을 하길 기원하며, (주)건설알포메 서면 타워 베르 · 빌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근무한 모든 작업자에게 기념비적인 현장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최종덕 기자〉

